

## 예비자 교리 교안 7 (12 월 31 일)

### 하느님 나라

#### 1. 예수님의 말씀(가르침)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하느님 나라이다.

- ◆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4-15). -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 ◆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말씀은 하느님 나라 설명 - 밭에 떨어진 씨앗, 달란트, 겨자씨, 누룩, 혼인잔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진주 등 “하늘 나라의 신비”(마태 13,11)를 알아들으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저 바깥”(마르 4,11)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 예수님의 공생활의 여러 기적들은 다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다. -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마태 12,28) 또한 하느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점, 거룩한 변모로 하느님 나라를 제자들이 맛보게 하신 점 등...

결론 예수님이 주로 이야기 하신 말씀들은 다 하느님 나라 선포이다.

#### 2.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다. - 신약성경의 핵심내용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밭에 심은 씨앗과 비슷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작은 양 떼에 들게 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런 다음에 씨앗은 저절로 싹이 터 수확 때까지 자라난다. 이 나라는 가난하고 미소한 자들, 곧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루카 4,18) 파견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마태 5,3)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셨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궁핍을 겪으셨으며, 더 나아가 여러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당신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하신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르 2,17).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회개를 호소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임”(루카 15,7)을 그들에게 보여 주신다. 이러한 사랑의 최상 증거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마태 26,28)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일이 될 것이다.

### **3.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씨앗처럼 성장 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나라입니다.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한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행복한 이순간이 하느님 나라이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함께 산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는 나라이며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 비춘다.)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 **4.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 선포과업 = 선교 사명**

하느님의 선교는 사랑의 체험과 그 힘으로 세상으로 향한다.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소중함을 당연히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른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강제적인 방법인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